

소견서

저 최병길은 우리 대학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우리 대학의 발전에 대한 열망과 확신을 한가득 품에 안고 제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을 위해 몸을 바치고자 합니다. **국립 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제4대 총장직에 출마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 40여 년 동안, 대학의 시립화, 캠퍼스 송도 이전, 전문대와의 통합 그리고 지금의 법인국립대에 이르기까지 숏한 역경을 헤쳐오며 획기적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인천대학교가 꿈꾸는 위대한 미래를 향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대학’**을 위해 또 다른 출발선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국내 모든 대학은 학령인구의 감소,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압력 등 유례없는 격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 압력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내부의 역량과 잠재력을 한껏 끌어올려 선제적 변화를 감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선두에 서겠습니다. 저 최병길은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우리 대학을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천 거점’ 국립대학**으로, 인천시민 누구나 사랑하고 존중하는 **‘시민의’ 대학**으로, 글로벌 환경에 최적화된 **‘아시아’ 중심대학**으로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대학**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변화를 통한 행복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대학이 처한 작금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대학평가 지표 순위를 거론하며 **‘10년 후 10위권 대학 진입’**이란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10위권은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의미도 없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대학을 만드는 데 있어 단순히 특정 분야의 대학 평가지표가 높고 낮음으로 우리 대학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내리는 것은, 매우 단편적이고 근시안적 접근입니다. 대학 평가지표보다는 **현재 구성원이 실제로 느끼는 현실을 제대로 진단할 때, 더 근본적이며 영속적인 처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선, 저 최병길은 **‘Talk less, Listen more!’**의 자세로,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에 항시 귀를 열어놓겠습니다.** 구성원 각자가 자각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누적된 폐해와 난제들을 소상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마련되면 **‘호시우행’** 즉,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단과 실천은 정확하고 과감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대학과 고티를 함께 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의 굴곡진 역정의 고비마다 **입학학생처장, 교수협의회장, 법인 전환기 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학내 구성원들과 숏한 희비의 현장을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대학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학교경영에 대한 값진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구성원의 애로

사항과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 최병길은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저는 우리 대학이 새로운 변화와 선제적 혁신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대학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놓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하겠습니다.

1. 기초 및 창의적 연계 교육 확대와 AI 디지털 교육플랫폼 활성화
2. 지속 가능한 연구인력 확충과 학제 간 연구 및 대형 국책사업 유치강화
3. 교육 연구 행정역량 전문화 및 법인체계 수익모델 개발
4. 구성원 맞춤형 핵심복지 실현 및 정년, 승진, 고용제도 개선
5. 대학 보유공간 마스터플랜 구체화 및 품격 있는 INU 문화 공간 조성
6.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로 사회공헌 확대와 인천 거점 국립대 위상 정립

위 목표들이 모두 달성되었을 때, 어떤 외풍에도 흔들림 없는 ‘위대한 초석’은 우리 아래 든든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초석 위에 구성원들이 흘린 땀은 머지않아 ‘모두가 행복한 대학’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또 다른 도약을 위한 거룩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학의 비전을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때 성공은 가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겸허하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구성원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자발성과 창의성이 살아 있는 건강하고 열린 대학, 구성원 모두가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행복한 대학을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저 최병길에게 그 소임이 주어진다면 구성원과 함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2024. 11. 27.

지원자: 최 병 길



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